

# 중요한건 보행 안전... 목포시, 걷기 좋은 도시 조성

### 올해부터 제4차 보행안전 기본계획 추진... 교통약자 안전 대책 마련 환경개선지구 7개 사업지 재검토... 인도 개설·웰빙공원 연계 강화 등

목포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섰다.

목포시는 현재 제4차 보행안전-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 워커블 시티 조성(Walkable City) 계획 등 보행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제4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법률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이다.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정책 실현이 목표다.

시는 ▲보행환경 실태조사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개선방안 검토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고령자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시는 현재 원도심 차없는 거리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7개 사업대상지 재검토를 진행한다. 새로운 지역도 선정해 지역실태와 사업시행 효과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제4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목포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 한계 극복이 필수이기에 국비 확보를 위한 2024년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해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인도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20개소에 5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웰빙공원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

시는 시민 걷기 동참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목포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이 공원 주변에 조성된 보행로를 걷고 있다. (목포시 제공)

있다. 올해 초부터 워커블 시티 조성 캠페인인 '모바일 앱(워크온)을 활용한 전 시민 걷기 챌린지' 운동을 진행 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걷기는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는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무안군,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준공

### 39억 투입...미화원 휴게시설·환경교실·청소차 차고지 등 갖춰

무안군이 생활폐기물 관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남부권 환경클린센터를 준공했다.

환경클린센터는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삼함읍 남악리 2605번지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남부권 환경클린센터의 주요시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환경교실, 종량제봉투 판매점 편의개선을 위한 종량제봉투판매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본부,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휴게공간과 체력단련실, 청소차량 차고지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문제에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주민들에게 환경 관련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업무 종사자들에게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외에도 중부권 환경클린센터, 서부권 환경클린센터를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주민들에게 더 깨끗한 일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신안군 '태양광 산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 9개 발전사·5개 회원사

### 신안태양광산업협회 발대

신안군에 태양광산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회가 출범했다.

신안군은 최근 태양광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양광산업협회(회장사 탐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안태양광산업협회는 9개 발전사(탐선, 비금 주민태양광발전, SK E&S, KCH, SMRE, 빛솔라에너지, 탐솔라 등)와 5개 일반회원사(한국수력원자력, 탐인프라 등)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신안군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일조량과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일조 및 간척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기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태양광산업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에 최적지"라며 "햇빛·바람 등 공유자산을 활용한 주민소득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햇빛·바람 연금을 지급해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전국 최초로 햇빛연

금에서 소외된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들 2000여명에게 '햇빛 아동수당'을 40만원씩(상·하반기 20만원) 지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전국 최상 품질' 진도 건표고버섯 공판



### 8.1t 2억4000만원 상당 거래

진도군이 건표고버섯을 첫 공동판매 했다.

진도군 표고버섯유통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판에는 지역 34농가가 참여해 건표고버섯 8.1t(2억 4000만원 상당)을 거래했다. (사진)

진도군 표고버섯 재배면적은 69농가, 49ha이며 연간 146t이 수확된다.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난 전국 최고

품질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은 고품질 표고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표고지목, 종균, 운반차량, 하우스 등 총 3억4000여만원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대표 임산물인 표고버섯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진도표고버섯 산업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해남 미남축제 푸드관 운영자 모집

### 푸드관 10곳·주전부리관 10곳...다음달 16일까지 신청

해남군이 올가을 개최되는 '제5회 해남미남축제'의 푸드관 및 주전부리관 운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푸드관 10곳과 주전부리관 10곳 등 총 20곳이다.

오는 6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남군에 영업 신고 후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과 해남군에 소재 및 거주하는 사회단체, 개인사업자이다.

선정 업소는 해남미남축제 부합하는 축제장 음식으로 보완 및 상품화 컨설팅을 거쳐 올해 해남미남축제의 푸드관에 참여하게 된다.

푸드관과 별개로 해남군 대표 농수산물을 활용한 주전부리관도 모집 운영한다.

접근하기 쉬운 주전부리 메뉴를 통해 축제장 내에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

군은 해남만의 고유한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해남미남축제 푸드관 운영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축제장에서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외식업소와 단체가 참여해 해남 미식관광 활성화에 일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 소상공인 중심 한정

진도군이 3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조정에 나섰으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 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 중이다.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영암경찰, 삼호중공업 방문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교육

영암경찰이 최근 삼호중공업 기술교육원 대강당에서 외국인 근로자(베트남·태국)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범죄유형(마약 등) 및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교육은 대불치안 협의체 외사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을 맞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테러 수준까지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적절하고 사전차단을 위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영암경찰이 자체제작한 PPT 등을 통해서 알기 쉽게 진행했으며 마약범죄예방 교육과 교통안전을 위한 무도류 이륜차 운행금지 및 기조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부지 확보

### 염산면 봉남리 9만5795㎡ 매입 협약...2025년 준공 목표



오는 2025년 준공될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조감도(왼쪽)와 지난 26일 진행된 건립 대상 부지 매입·매각을 위한 업무협약식. (영광군 제공)

영광군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이 최근 부지를 확보하며 2025년 준공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

영광군은 최근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9만5795㎡(2만8979평) 규모 22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업무협약을 토지 소유자와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토지 소유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가 영광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업 편입 토지 매각·매입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광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가 남았다.

군은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영광=이중수 기자 jylee@kwangju.co.kr



오는 2025년에는 7424㎡(2245평) 규모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를 준공하고 2026년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연안 해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 기간 국내 참조기 어획량이 43.5% 감소하면서 참조기 대량 양식 산업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국 참조기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은 지난 2021년 생산량이 1만9000t으로, 전년(2만4000t)보다 20.8% 급감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참조기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종자 생산 지원, 육상 수조식 양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준공될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에는 고수온에 강한 양식장을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화 센터에는 육상 수조식 양식기술과 해수·염지하수 순환여과식 기술, 태양열·지열 에너지 활용 기술 등이 적용된다.

산업화 센터에는 육상 수조식 양식기술과 해수·염지하수 순환여과식 기술, 태양열·지열 에너지 활용 기술 등이 적용된다. /영광=이중수 기자 jylee@kwangju.co.kr